

## 이제 5만원권이 대세 지하경제 유입 우려도

23일로 발행 10주년을 맞은 5만원권이 다른 권종을 누르고 가장 많은 발행량을 차지했다. 5만원권 발행 10년이 지난 현재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거의 자취를 감췄고, 경조사비 봉투엔 1만원권보다 5만원권이 더 많이 쓰이게 됐다. 5만원권 발행으로 경제생활의 편리함은 더해졌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환수율 탓에 지하경제 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에서도 신분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현금보다 위조가 상대적으로 쉬워 위·변조에 따른 피해 사례도 잦았다.

다만 5만원권이 범죄수단에 악용되거나 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한 해 동안 5만원권 발행액에 견준 환수액을 나타내는 환수율은 67%로, 1만원권(107%), 5000원권(97%), 1000원권(95%)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환수율 탓에 5만원권이 지하경제로 흘러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세계일보'가 한국은행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5만원권은 98조 2,000억원으로 금액 기준으로 전체 은행권(지폐)의 84.6%를 차지했다.

장수 기준으로도 2017년부터 다른 지폐들을 제쳤다. 5만원권은 지난달 말 현재 19억 6,000만장(36.9%)이 유통되고 있어, 1000원권(16억장), 1만원권(14억 8,000만장)을 제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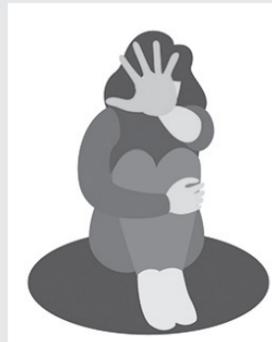
5만원권은 10만원권 수표의 발행 부담과 사용 시 어려움을 줄이고 1만원권 여러 장을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없애자는 취지로 도입돼 2009년 6월 23일 공식 유통을 시작했다.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5만원권 지폐에 거의 대체됐다. 10만원 자기앞수표 교환 장수는 2008년 9억 3,000만장에서 지난해 8,000만 장으로 대폭 줄었다. 자기앞수표는 사용할 때 뒷면에 신원 등을 배서해야 했고, 받는 쪽

지하경제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3.1%에서 2015년 19.8%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직장 내 성희롱 만연 '하루 신고 2건 꼴'

정부가 운영하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지난 1년간 하루 2건 꼴로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달라는 의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희롱 신고 사업장은 공공 부문이 59건(8.2%), 민간 기업이 658건(91.8%)이었다.

행위자 성별은 남성(추정 28.7% 포함) 54.2%, 여성(추정 2.0%) 6.5%

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익명신고 특성상 확인할 수 없었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신체접촉·추행이 48.5%(중복 응답)로 가장 높았고, 성적농담·음담패설 42.0%, 외모평가·성적발언 18.8%, 사적만남 요구 발언 9.5% 등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유형으로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소문이 퍼진 경우, 성희롱 사건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비난한 경우, 동료들이 노골적·은밀한 형태로 따돌린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20일 '아이뉴스24'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서 지난해 3월 8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모두 7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월 평균 60건, 하루 평균 2건 꼴로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신고된 내용 가운데는 또 "짧은 미자를 입고 출근하라", "화장을 진하게 하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 여성이 많은 직장엔 신입 남성 사원이 들어올 때마다 노래와 춤을 강요한 경우, 거래처와의 회의 분위기를 좋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여직원 참여를 강요한 경우 등이 있었다. 또 업무 외의 만남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고 방법으로는 익명 294건, 실명 423건으로 실명 신고가 더 많았다.

익명 신고센터 입에도 실명으로 신고한 사례가 더 많은 이유에 대해 고용부는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함에도 실명으로 신고가 많은 것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사업장을 지도·감독을

가해자에 대한 조치 사례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없이 사건을 무마했다고 한 경우가 24.8%로 가장 높았다. 가해자를 징계한 경우가 8.8%, 성희롱에 비해 경미한 징계나 구두경고 등 불합리하게 조치했다고 신고자가 평가한 경우가 7.4%였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 빅토리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